

## 유목적 유토피아의 구조와 그 영웅들\*

— 몽골 구전영웅서사시 「장가르」의 경우

조 현 설\*\*

### [초 록]

「장가르」는 봄바국을 봄·가을만 있는 계절 속에서 영원히 스물다섯인 청년들이 사는, 늘 잔치가 벌어지는 유토피아로 묘사하고 있지만 봄바는 불안정한 이상국이다. 봄바국의 잔치는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축제는 전투로 이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흥겹고도 불안한 축제가 된다. 봄바국의 권력체제 내에서는 늘 왕과 사제, 왕과 전사, 전사와 사제의 대립이 존재한다. 봄바국의 군주 장가르는 이 대립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전투를 통하여 해소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봄바국 내부에 축조된 영웅들의 대립 구조는 정주사회와는 다른 유목사회의 리더십을 반영한다.

「장가르」가 형상화한 봄바국의 외부는 내부의 대립을 외화하여 그 대립 상태를 해소하는 장치로 존재한다. 봄바국의 외부는 괴물 망가스로 상징화된 적들의 공간이다. 따라서 봄바국의 외부는 장가르와 망가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장가르, 홍고르, 봄바, 잔치, 구비서사시, 유목적 영웅, 유목적 유토피아  
Jangar, Hongor, Bomba, Feast, Oral Epic, Nomadic Hero, Nomadic Utopia

스의 반복적 대결 구조로 구축되어 있다. 비봄바국에서도 잔치는 존재하지만 비봄바의 잔치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장가르는 부재하고, 전투를 촉발하는 망가스만 존재한다. 비봄바의 공간은 잔치가 전투이고 전투가 잔치인 공간, 전투와 잔치가 미분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장가르와 망가스, 봄바국과 비봄바국의 반복되는 전투는, 전투에서 잔치로 진행되는 정주사회 서사시와는 다른, 전쟁을 넘어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정주국가의 영웅 서사와는 다른, 불안정하고 덜 평화적인 유목사회의 서사와 구조를 재현한다.

## 1. 문제와 시각

그간 국내에서의 「장가르」 연구는 동아시아 구전영웅서사시의 문학사적 맥락과 서사구조, 영웅상에 대한 연구<sup>1)</sup>, 「장가르」의 기원과 역사성에 대한 연구<sup>2)</sup>, 「장가르」의 판본 및 번역에 대한 연구<sup>3)</sup> 등의 방향에서 이뤄진 바 있다. 근래에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형상에 대한 연

- 
- 1)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서울: 문학과지성사; 최원오(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1) —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박종성(2004), 「몽골 구비영웅서사시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9, 동아시아고대학회; 오트공바야르(2009), 「<조웅전>과 <장가르>의 비교연구: 영웅의 형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대석(2000), 「동북아시아 영웅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2) 이안나(2013),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의 기원 문제」, 『몽골학』 34, 한국몽골학회; 이평래(2018), 「장가르(Jangar)의 역사적 근거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속학연구』 42, 국립민속박물관.
  - 3)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 유원수 주해(2011), 『장가르 1』, 한길사;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 유원수 주해(2016), 『장가르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연구원;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 유원수 주해(2018), 『장가르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연구원.

구4), 잔치의 의미에 주목한 연구<sup>5)</sup> 등이 제출된 바 있다. 특히 유원수 교수에 의해 근래 원전 번역이 완료됨으로써 국내 「장가르」 연구는 한 단계 심화될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내의 구전영웅서사시 연구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고 건너야할 돌다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서사시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이다.

요컨대 고대서사시 구전에서는 고대 자기중심주의에 입각해 배타적 투쟁이 확인되고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기록된 중세 서사시에서는 문명권 전체의 중세보편주의의 가치관과 민족적 영웅의 위업을 찬양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복합되어 있으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서사시 구전에서는 영웅서사시가 범인서사시로 바뀌고, 일상적 관심사가 중요시되고, 관중을 흥미롭게 하려는 변화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sup>6)</sup>

이런 세계서사시사의 시각으로 「장가르」를 읽으면 「장가르」의 “영웅에 대한 과도한 칭송은 고대적인 사고방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웅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홀로 우뚝하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므로 영웅이 위대하다고 한 데서는 중세적 영웅관을 나타냈다고 보아 마땅하”<sup>7)</sup>고, “초원의 세계와 정착민의 세계를 함께 다스려 카간이기도 하고 황제이기도 한 새로운 지배자가 출현했다. (...) 초원의 세계에서 무력으로 싸워 이긴 영웅을 칭송하는 고대서사시의 단계를 넘어서고, 정착민의 중세문명에는 서사시가 없는 결함을 시정

4) 이안나(2014),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타난 여성의 신화적 형상과 의미」, 『비교한국학』 22, 국제비교한국학회.

5) 김민아(2016),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오는 ‘잔치’의 양상과 의미」, 『문학과종교』 21 (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6) 조동일(1991),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p. 149.

7)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p. 295.

해서 두 세계에서 함께 받아들여야 할 중세서사시를 마련했다.”<sup>8)</sup>라는 식의 결론에 이른다.

「장가르」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다종의 학설이 제출되어 있지만<sup>9)</sup> 다수설인 13~18세기 형성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예의 세계서사시사적 시각으로 보자면 「장가르」를 중세서사시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대 구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장가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작품 속에는 조동일 교수가 언급한 ‘고대적 자기중심주의’도 있고, 불교에 근거한 중세적 가치관도 보인다. 동시에 원시주술적 세계관도 존재한다. 말하자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현상이 서사시에는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장가르」가 오랜 구전의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인류 문화란 본래 서로 다른 시공간관이 공존하는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0)</sup> 따라서 「장가르」를 중세서사시로 ‘규정’하는 것은 「장가르」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는 일일 수 있다. 나아가 서사시를 ‘고대·중세·이행기’라는 시대구분의 틀에 배당하는 일종의 ‘신화만들기’가 「장가르」 이해의 긴요한 논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 더 요긴한 지점은 「장가르」를 「마나스」나 「게세르」 등 중앙아시아 지역 유목민이나 정주민들의 영웅서사시와 비교하면서 서사시 전승자들의 생활(역사, 문화)과 서사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서사들이 형상화하고자 하는 세계의 보편성은 무엇이며, 각각의 서사시가 지닌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유목사회에서 서사시의 전승이 지닌 본질적 국면을 드러내고, 그것이 정착민의

8) 조동일(1997), p. 297.

9) 형성 시기에 대한 국내외의 학설은 이안나(2013)에 잘 정리되어 있다.

10) 시대구분론의 중세·근대, 혹은 이행기 등의 관념은 근대라는 시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근대중심적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은 없다. 근대성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근대 세계는 존재한 적도 없다.”[브뤼노 라투르, 홍철기 옮김(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p. 128]라는 관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서사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내는 연구가 국내 「장가르」 연구의 당급의 과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장가르」가 형상화하고 있는 이상적 공간인 ‘봄바국’의 구조와 그 속에서 활약하는 유목적 영웅들의 형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유목적 유토피아의 내부 구조와 영웅들

### 2.1. 상상의 나라 봄바국

「장가르」의 주인공 장가르는 고아로 태어나 영아 시절부터 전공을 쌓고, 마침내 “주군 통치자 장가르가 / 대주의 네 임금의 딸들을 마다할 때 / 놈 퇴게스 임금의 딸을 청해 / 공주 샤프달을 하탄을 삼고 / 국권과 종교를 손에 쥐고 / ‘(타키 줄라 임금의 후손) / 위쟁 알다르 임금의 아들 / 당대의 하나 뿐인 장가르’라고 하는 칭호를 불렀네. /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 겨울이 없는 봄의 나라에서 / 여름이 없는 가을의 푸른 초원으로 / 있는 나라에서 / 자신의 몸은 늘 / 스물다섯 살의 모습으로 /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게 되었네.]”<sup>11)</sup>라고 노래하고 있는 대로 낙원을 건설한다. 봄·가을만 있고 영원히 스물다섯 살로 사는 나라는 지상에는 없으므로, 그야말로 유토피아(Utopia)다. 이 초원의 유토피아에 붙여진 이름은 바로 ‘봄바국’이다.

‘봄바’는 텍스트에 따르면 본래 장가르의 조부 이름이다. 영웅서사시 「장가르」는 “옛날도 아주 옛적에 나오신, / 이 많은 부처님들의 법이 펼쳐질 적에 나오신, / 타키 줄라 임금의 후손 / 탕삭 봄바 임금의 손자, / 당대의 고아 장가르가 있었네.”라고 하여 장가르의 혈통에 대한 소개로

11) 유원수 주해(2011), pp. 85-86.

시작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조부의 이름이 ‘탕삭 봄바’, 곧 ‘고귀한 봄바’다. 말하자면 타키 졸라를 시조, 탕삭 봄바를 중시조(中始祖)로 두고 있는 장가르 가문의 족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족보에 따르면 ‘봄바국’은 중시조인 탕삭 봄바가 세운 나라인데 아들 대에 망가스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손자 대인 장가르에 의해 복원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장가르」가 상상하고 있는 봄바국은 한 호르무스타 텅그리가 다스리는 서사시 「게세르」의 천상계처럼 지상에는 없는 공간이다. 봄바를 지상의 공간으로 설정한 채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죽음 없이 영원히 스물다섯 살로 사는 나라, 늘 봄과 가을만 있는 나라는 지상에는 없는 상상의 공간이다. 따라서 「장가르」는 “기구한 운명에 몸부림쳐야 했던 칼미크-오이라드 민중이 구원자의 출현을 꿈꾸며 부르는 한 맺힌 절규”<sup>12)</sup>이고, 장가르가 건립한 봄바국은 칼미크-오이라드 인민들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꿈꾸었던 상상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봄바국은 고대국가의 건국 영웅들이 건립했던, 예컨대 고조선이나 고구려 등과는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오이라드를 포함한 몽골인들이 건설했던 몽골제국, 혹은 원(元)과도 다른 나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구전서사시 「장가르」는 봄바국을 상상했을까? 종교학자 김민아가 봄바국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의미를 다루면서 “혹독한 날씨와 싸워야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땅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며, 전쟁 혹은 사냥으로 인해 항상 육체적 위협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몽골 사람들에게 『장가르』를 연창할 때 눈앞에 그려지는 봄바국에서의 잔치는 그 자체로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을 것”<sup>13)</sup>이라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학적 상상세계를 현실의 결핍을 보충하는 위안의 담론으로 이해한다. 구전서사시 「장가르」도 초원의 유목민들에게 그런 예술적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가르」의 상상의 나라 봄바국에는 그 이상의 함

12) 유원수 주해(2018), p. 6.

13) 김민아(2016), p. 80.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유목적 유토피아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잔치가 낭자한 유토피아에서 활동하는 영웅들의 형상과 그들의 역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 2.2. 봄바국의 내부 구조와 영웅들

서장 다음에 펼쳐지는 「퀵켄 알탄 체지를 들인 마당」을 보면 처음에는 적이었다가 굴복하여 장가르의 수하가 된 알탄 체지의 예언이 구술되어 있다. “그가 이 봄바의 나라를 평안케 하여 / 넉넉하고 아름다운 때에 / 오른편을 이끄는 용사는 / 나, 퀵켄 알탄 체지가 되어 앓을 것이오 / 왼편을 이끄는 것은 / 꿈에 그리던 올란 홍고르가 이끌고 앓을 것이오”<sup>14)</sup> 예언대로 장가르가 건설한 봄바국의 주군 장가르의 우익에는 알탄 체지가, 좌익에는 홍고르가 자리 잡는다. 이는 봄바국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자리 배치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에 이 ‘삼각구도’는 유목민 서사시 「장가르」의 본질을 시사하는 봄바국의 내적 구조이다. 이들 삼자의 관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 「장가르」가 다른 영웅서사시, 특히 「동명왕편」과 같은 정주자들의 영웅서사시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저 삼각구도에는 세 개의 대립쌍이 존재한다. 먼저 장가르와 알탄 체지가 대립한다. 장가르는 홍고르와도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장가르의 좌우익인 알탄 체지와 홍고르도 대립한다. 이들은 봄바국의 잔치 마당에서 함께 앉아 유토피아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주군과 신민이라는 주종 관계 속에서 연합하면서도 대립하고 대립하면서도 연합한다. 이 세 개의 대립쌍은 다시 장가르-알탄 체지 짝과 장가르-홍고르 짝으로 나뉘어 대립쌍을 이룬다. 이 이중의 대립이 봄바국의 정치 구도이고, 이 대립이 봄바국을 노마드의 상상적 국가체제로 만든다. 이는 고대 국가의 건국서사

14) 유원수 주해(2011), pp. 84-85.

시가 형상화하는 일반적인 국가체제와는 꽤나 다른 국면이다.

그렇다면 장가르와 알탄 체지는 어떤 관계인가? 장가르는 말 그대로 「장가르」가 노래하는 봄바국의 주군이고 알탄 체지는 수하지만 둘의 관계는 단순한 주군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다. 「홍고르 장가르는 마당」에는 둘의 특별한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열여덟 홍고르가 장가를 가고 싶다고 하자 장가르는 자신의 말 아란잘 제르테를 타고 직접 잠발 임금(뵈케 뵈겐 식세르계)의 딸 잔단 게렐한테 청혼하러 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때 알탄 체지는 자신이 과거에 잔단 게렐을 본 적이 있는데 “바깥 몸은 천녀였습니다만 / 속 몸은 악마의 모습을 한 계집애였습니다.”<sup>15)</sup>라고 하면서 청혼을 만류한다. 이 만류에 대해, 서술자의 위치에 선 장가르치<sup>16)</sup>는 “예언하여 말하고 있네.”<sup>17)</sup>라고 응송한다. 알탄 체지의 예언은, 늙어서 예지력이 떨어졌다는 장가르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 장가르가 자신의 말 아란잘 제르테에게 다가가자 장가르치는 “뒤에서는 바인 쾅켅 알탄 체지는 / 예언을 하며 앉았네.”<sup>18)</sup>라고 다시 응송한다. 그렇다면 알탄 체지는, 장가르치의 말대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왕과 사제의 관계라고 봐야 한다.

주지하듯이 무당왕(Shaman-king)은 고대국가 초기의 권력 형태다. 왕은 주권자이자 사제였다. 예컨대 고구려 건국신화의 주인공 주몽의 형상이 그러하다. 주몽은 고구려의 건국자였을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엄체수를 쳐서 어별교를 만들고 화살에 맞아 떨어진 비둘기를 살려낸 주술가이기도 했다. 송양왕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흰사슴을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위협적 주술을 사용하기도 했다.<sup>19)</sup> 그런데 국가체제가 안정되면

15) 유원수 주해(2011), p. 95.

16) 장가르치는 서사시 「장가르」를 연창하는 예인(藝人)을 부르는 알타이어로 「계세(사)르」를 부르는 계세르치, 「마나스」를 부르는 마나스치와 같은 계열의 말이다.

17) 유원수 주해(2011), p. 95.

18) 유원수 주해(2011), p. 96.

두 기능은 분리된다. 왕의 의례집전자 기능이 사제에게 위임된다. 그 사례를 우리는 저 유명한 신라의 ‘아로(阿老)부인’에게서 만날 수 있다. 『삼국사기』의 제사조에 따르면 “제 2대 남해왕 3년 봄에 비로소 시조 혁거세의 묘를 세워 계절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친누이 아로가 제사를 주관케 하였다.”<sup>20)</sup>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읽으면 장가르와 알탄 체지의 기능 배분은 봄바국이 비록 상상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이룩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 알탄 체지는 예언을 통해 만류하지만 장가르는 “내가 옳다고 한 것을 / 그대는 왜 잘못이라고 하는가? / 예전에는 알았다, 그대는, / 이제는 알던 것이 없어지고 늙어, / 그대가 한 말은 그대의 이빨과 입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라! / 하고 분부”<sup>21)</sup>한다. 왕은 예지력을 잃은 늙은 예언자라고 비판하면서 사제의 조언을 거부한다. 거부를 통해 왕은 사제와 대립한다. 봄바국은 이상국이지만 내부 체제는 안정적이지 않다. 봄바국은 국가체제를 지향하지만 스스로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요인을 내함하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제와 대립하는 왕이 이 불안정성의 근인(根因)이다.

그렇다면 장가르와 흥고르는 어떻게 대립하는가? 「장가르」를 따라가

19) 暗結烏伊, 馬離, 陝父等三人, 南行至盖斯水, 欲渡無舟, 恐迫兵奄及, 乃以策指天, 慨然嘆曰: “我, 天帝之孫, 河伯之甥, 今避亂至此. 皇天后土令我孤子速致舟橋.” 言訖, 以弓打水, 魚鼈浮出成橋, 朱蒙乃得渡. 良久, 追兵至, 河魚鼈橋即滅, 已上橋者, 皆沒死. 朱蒙臨別, 不忍睽違, 其母曰: “汝勿以一母爲念.” 乃裹五穀種以送之, 朱蒙自切生別之心, 忘其麥子. 朱蒙息大樹之下, 有雙鵲來集, 朱蒙曰: “應是神母使送麥子.” 引弓射之一矢俱舉, 開喉得麥子, 以水噴鳩, 更蘇而去. (…)  
王西狩, 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 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王以鞭畫水, 水即滅, 松讓舉國來降(世宗實錄地理志·平安道 平壤府), 「檀君古記」).

20)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三國史記』卷32 雜志 第1).

21) 유원수 주해(2011), p. 95.

다 보면 누구나 장가르보다 더 자주 홍고르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장가르」의 주인공은 오히려 홍고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홍고르는 장가르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의미항이다. 홍고르는 장가르와 동갑내기로, 본래 적장이었던 뵈케 땡겐 식셰르계의 아들이었는데 장가르의 미래를 살핀 식셰르계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 포로가 된 5살짜리 장가르를 죽이려고 할 때, 또 여섯 살 장가르가 식셰르계의 명령에 따라 알탄 체지의 말을 훔치다가 화살에 맞아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에게 간청하여 장가르를 살린 인물이다. 홍고르는 장가르의 은인이자 친구지만, 봄바국이 건립된 뒤에는 주군과 수하의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는 역사적 인물이었던 칭키스 카한 테무친과 자무카의 관계와 유사하다.<sup>22)</sup>

그런데 홍고르는 장가르의 좌익을 담당하는 용사로 봄바국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비(非)봄바적인 인물이다. 홍고르는 사제의 예언을 무시하는 인물이고, 고집불통인데다 용력이 과잉인 인물이다. 그를 특징짓는 지표는 무엇보다 그가 술주정뱅이라는 사실이다. 이상국 봄바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잔치인데 이 잔칫상에서 그는 늘 술에 취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그는 봄바국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존재다. 『천의 고원』이 제기한 “전쟁기계는 국가장치에 외재한다.”<sup>23)</sup>는 ‘공리’를 빌려 말한다면

22) 물론 자무카는 테무친이 초원을 통일한 이후 그의 수하가 되지는 않았다. 『몽골비사』에 따르면 자무카는 “이제 나의 칸 형제가 용서하여 나를 동무하자고 했다. 동무했어야 할 동무하지 않았다. 이제 형제는 주위의 나라를 평정했다. 외방 모두를 합병했다. 칸의 자리는 그대에게 향했다. 천하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동무하여 무슨 도움이 될까? 도리어 검은 밤에 형제의 꿈에나 보일 것이다. 밝은 날, 그대의 마음이나 괴롭힐 것이다.”[유원수 역주(1994), 『몽골비사』, 해안, pp. 174-175]라고 했고 칭키스 카한 테무친은 그의 목숨을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르」가 역사적 인물 칭키스 카한과 관계가 있다면 장가르의 홍고르의 관계는 테무친과 자무카의 연합을 기대했던 몽골 유목민들의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23)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trans. by Brian Massumi, 1987), *A Thousand*

그는 전쟁기계다. 그는 봄바국이라는 국가장치 안에 있지만 국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밖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는 쌍둥이 관계라고 해도 좋은 장가르와 대립한다.

「올란 홍고르가 바타르 하라 질간 임금과 전투를 벌인 마당」(3장)은 “여기저기 일곱 동아리를 이루고 앉은 / 넉넉한 검은 아르자 술자리에서 / 아르슬랑의 위용 올란 홍고르는 / 아르자 술에 취해 / 주정을 하고 있네. / “내 열 손가락에 / 아니 우그러진 사람이 없어! / 내 오출 궤계 갈잔의 엉덩이 위에 / 간지개로 아니 묶인 사람이 없다고!” 하고 / 주정하며 악을 쓰고 앉았네.”로 시작된다. 홍고르의 존재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홍고르의 주정에 대해 장가르는 “정말로 잘났다면 / 바타르 하라 질간(용사 검은 위선자) 임금을 / 산 채로 잡을 수도 있겠구나, 네가?”<sup>24)</sup>라고 도발한다. 왕은 부하의 술주정을 만류하지 않고, 용력 과잉의 전사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 왕은 전쟁기계의 전쟁 욕망을 촉발시킨다. 이 의도된 촉발을 통해 왕은 스스로 전사와 대립한다.

장가르가 홍고르와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홍고르는 자신의 용력을 못 이겨 전투에 나가고 대개의 경우 뛰어난 용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다. 이것이 홍고르 서사의 전형성이다. 이 때 위기에 처한 홍고르를 구원하는 존재가 장가르다. 「하라 질간 임금과의 전투 마당」에서는 8만 병력이 지키는 질간의 대궐을 보며 후회하지만 그래도 사투 끝에 질간 임금을 잡아 오지만, 「올란 홍고르가 애흐 독신 망나(두렵고 흥명한 선봉) 임금을 다히고 주군 성주 장가르에게 들여준 마당」(4장)에서는 장가르에 반발해 전투에 나선 홍고르가 적의 화살에 맞아 인사불성이 되자 결국 장가르가 출전하여 독신 망나를 제압하여 1001년 동안 속방으로 삼는다. 이런 경우 홍고르는 장가르와 대립하지만 그 대립은 결국 장가르의 위용을 부각시키는 데 이른다. 최종적으로는 적을 복속시키고 봄바국

*Plateau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p. 351.

24) 유원수 주해(2011), pp. 167-168.

의 잔치로 돌아온다. “처음보다 더 사이가 가까워진 홍고르를 주변으로 하여 / 벌여본 적이 없는 잔치를 벌였네. / 잃었던 국권과 종교를 / 손에 잡은 것처럼 기뻐하며 / 주군 통치자 성주는 사네. / 자신의 수많은 대신들과 함께 / 같이 웃으며 즐기며 사네.”<sup>25)</sup> 홍고르로 인해 탈영토화되었던 봄바국은 장가르로 인해 재영토화된다. 봄바국의 내부에서 홍고르는 장가르와 대립하지만 외부에서 홍고르는 망가스를 제압하는 장가르를 부각시키는 보조적 영웅의 기능을 수행한다.

알탄 체지와 홍고르는 어떻게 대립하는가? 「용사 붉은 홍고르가 이왈랑가 임금과 싸운 마당」<sup>26)</sup>을 보면 첫머리는 역시 잔치로 시작된다. 이 잔치 마당에서 느닷없이, 아직 술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홍고르가 입을 연다.

점잖은 장사 땡겐 식세르계의 / 맘자식인 / 맨 앞의 붉은 홍고르  
가 / 말하네. / “나와 같은 사내가 / 있기는 한 것인가? / 내 말과 같  
은 / 말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고 나서, / 오른손으로 (땅을) 찢러  
대자, / 손은 손목 깊이까지 / 땅 속으로 들어가네.<sup>27)</sup>

홍고르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장면인데 이에 대해 “바로 다음에 앉은 / 쾡겐 알탄 체지가 / 말하네. / “애야, 애야, / 너무 크게 흥분하지 마라.” 라고 타이르면서 알탄 체지는 “밖에서 무거운 다리를 가진 / 사람이 온다고 한다.”<sup>28)</sup>라고 예언한다. 그의 예언은 추후 ‘악마 임금의 우두머리 용사’라는 사내가 와서 장가르의 아내 샤프랄 하탄과 말 제르테를 비롯한 4가지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그 전에

---

25) 유원수 주해(2011), p. 216.

26) 유원수 주해(2018).

27) 유원수 주해(2018), p. 167.

28) 유원수 주해(2018), p. 167.

알탄 체지의 예언에 대해 홍고르는 “이 재수 없는 인간이 / 무슨 말을 하는 거야?”<sup>29)</sup>라면서 반발한다. 전사 홍고르와 사제 알탄 체지는 이런 형식으로 맞선다. 전사 홍고르는 사제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용력을 주체할 수 없는 전사는 신(神)을 모른다, 부정한다.

봄바국이 지속되려면 사제와 전사의 사회적 균형이 긴요한데 이 균형은 전사에 의해 깨진다. 이 균형을 잡아줄 존재는 국권(國權)과 교권(敎權)을 장악한 주군 장가르다. 그러나 장가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자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행동한다. 장가르는 늘 홍고르를 전투에 내보낸다. 「용사 붉은 홍고르가 아일랑가 임금과 싸운 마당」의 경우에도 장가르는 처음에는 다라-다라 셀뎡, 다음에는 퀴테 가르타 사와르를 시켜 아일랑가의 사자를 추격하라고 명했으나 오히려 되잡혀 끌려가자 결국에는 홍고르를 파견한다. 홍고르는 자신의 힘으로 적을 죽였으나 방심한 나머지 다시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적을 소탕하고 죽은 홍고르를 영약으로 살려내는 존재는 역시 장가르다. 장가르는 홍고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용력을 발휘하게 한 뒤 그를 회복시킴으로써 전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잔치마당에 복귀시킨다.<sup>30)</sup>

이렇게 보면 장가르는 봄바국의 불안정성, 곧 사제와 전사의 대립을 외부의 적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듯하다. 장가르에게 망가스는, 봄바국에 비봄바국은 필수적이다. 양자는 적대적 상호관계를 지닌다. 알탄 체지와 홍고르 없이 봄바국의 장가르가 있을 수 없듯이 비봄바국 없이 봄바국은 존재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봄바국의 외부에 망가스가 있기

29) 유원수 주해(2018), p. 168.

30) ‘2018 알타이학연구소 학술대회’(2019. 1. 28)에서 이 논문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던 이평래 교수는 장가르와 알탄 체지, 장가르와 홍고르의 관계에 대해 “장가르는 좌우익 사이의 대립의 해소자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장가르를 국권과 교권을 한 손에 쥔 존재라고 하는 것과 부합”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유의미한 문제 제기에 감사한다. 그러나 장가르의 대립의 해소 혹은 조정이 봄바국 내부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때문에 봄바국의 잔치와 봄바국의 장가르는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sup>31)</sup>

### 2.3. 유목적 유토피아 봄바국

앞서 ‘세 대립쌍이 다시 장가르-알탄 체지 짝과 장가르-홍고르 짝으로 분립되어 대립쌍을 이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알탄 체지는 장가르의 우익을 이루는 수하이지만 기실 상징적으로는 국권과 교권을 준 장가르의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홍고르는 장가르의 벗이자 수하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장가르의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장가르라고 할 수 있다. 장가르는 국권을 준 전사이자 교권을 준 사제다. 영웅 장가르의 내부에 존재하는 두 특성이 알탄 체지와 홍고르의 형상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두 짝의 대립은 변형된 사제와 전사의 대립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가르」가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칭송하고 있는 봄바국은 외형적으로는 잔치의 흥취가 넘치는 유토피아지만 내적으로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술주정뱅이 전사 홍고르가 거기 앉아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알타이나 몽골 창세신화 속의 ‘월겐-에를릭’이나 한국 창세신화 속의 ‘미륵님-석가님’의 관계처럼 장가르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전쟁기계 홍고르로 인해 봄바국은, 선악과를 품은 에덴(Eden)이 그러하듯, 결여를 포함한 낙원이 된다.

---

31) 필자가 교권과 국권을 장악한 장가르의 형상을 고대국가 초기의 권력 형태인 ‘샤먼킹’에서 찾는 데 대해 이 논문의 한 심사자는 그것이 ‘티베트 불교에서 차용한 불교의 옷’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논평을 피력한 바 있다. ‘교권과 국권을 한 손에 쥐’이라는 구비공식구(oral formula)에 불교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불교의 산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가르의 영웅적 형상은 몽골(칼미크-오이라트) 사회에 티베트 불교가 유입되기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티베트 불교는 이미 있던 샤먼킹으로서의 수장의 이미지를 종교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봄바국은 노마드의 상상력이 주조한 유목적 영웅들의 불안한 이상향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장가르」 연구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주목된다. 먼저 제 룽상터르찌는 「게세르」와 「장가르」에 등장하는 ‘봄바’의 의미를 천착하면서 이 단어가 본래 티베트어의 본뽀(몽골 발음은 ‘봄바’)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본뽀는 불교 이전 티베트의 전통 종교이자 불교 전래 이후에는 불교와 경쟁했던 티베트 샤머니즘이다. 「장가르」는 “옛날도 아주 옛적에 나오신, / 이 많은 부처님들의 법이 펼쳐질 적에 나오신”<sup>32)</sup>이라면서 장가르 출현과 불법(佛法)을 연관시키고 있지만 기실 「장가르」는 불교보다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토양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제 룽상터르찌는 「장가르」에 자주 등장하는 살인과 약탈은 불교와는 어긋나지만 본뽀의 종교적 관습, 곧 그것이 ‘정직을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나아가 과거 몽골에서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는 행위는 아이막<sup>33)</sup>들의 생활 방편이었지 범죄가 아니었다<sup>34)</sup>고도 했다.<sup>35)</sup>

또 다른 견해는 「장가르」에 반영된 사회체계를 분석한 몽흐자야 교수

32) 유원수 주해(2011), p. 57.

33) 보통 부(部)로 번역하는 몽골의 행정구역 명칭인데 처음에는 일정한 유목지를 공유하는 혈연집단을 의미한다.

34) 이 대목에 대해 “고대 몽골에서는 죽이고, 공격하고, 강도질하고, (타인의) 가축 약탈을 죄로 치지 않았다. 이것은 생활의 표준이자 여러 아이막 사이의 관계의 (한) 방식이었다.”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이 견해가 룽상터르찌의 것이 아니라 러시아 학자 구밀료프의 견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 견해 자체가 유목사회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라고 논평해 준, 이 논문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유목 사회의 성격에 대한 해석 문제는 현재로서는 필자의 이해를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해두기로 한다. 향후 유목사회의 성격과 서사시의 관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35) Ж. ЛУВСАНДОРЖ (2011), 「«Гэсэр», «Жангар» — т гардаг бумба гэдэг үгийн учирт», 『B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pp. 146-152.

의 것이다.<sup>36)</sup> 그는 「장가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족 아이막의 동맹에 대한 묘사는 어트치긴의 기념비(732년), 빌게 카간의 기념비(735년), 위구르의 테르히 비의 기념비(약 756년), 모운초르의 기념비(735년) 등에 등장하는 동맹을 통한 전쟁의 기록을 결합하여 놓은 것이며, 이는 13세기 이전 몽골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장가르」에 묘사되어 있는 장가르와 열두 영웅의 관계는 장가르를 주군으로 삼아 구성된 부족연맹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군 장가르의 명령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영웅들의 형상은 바로 몽골 부족연맹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들을 앞서 텍스트를 통해 분석한 봄바국의 정체와 잘 부합된다. 「장가르」는 봄바국을 늙지 않는 청년 영웅들이 거주하는 낙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기실 그곳은 끊임없이 왕과 대립하는 전사들, 사제와 대립하는 전사들이 있는 공간이다. 팽팽한 대결이 잠복되어 있는 영웅들의 낙원은 모순이다. 상상과 현실이 충돌한다. 이 모순은 13세기 이전 부족 간의 연맹을 통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몽골 사회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불교 이전의 봄바라는 종교는 전쟁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초원 유목민들의 현실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쟁 너머의 잔치로 가득 찬 봄바국을 상상하게 하고, 봄바국의 주군 장가르를 형상화했을 법하다.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넘어 끊임없이 갈등을 봉합하는 영웅, 장가르와 같은 화합의 상징이 긴요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사와 사제의 대립을 내적 구조로 지닌 봄바국은 소위 중세 종교의 이상이 구현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전쟁의 피비린내를 풍기는 유목적 유토피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36) МӨХЗАЯА (2011), 「Жангарт тусгагдсан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B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pp. 45-51.

### 3. 유목적 유토피아의 외부 구조와 영웅들

#### 3.1. 봄바국의 외부 구조와 망가스

봄바국의 외부에는 다양한 적들이 있지만 대개 적들의 공간은 북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적의 표상은 괴물 망가스(망고스/망구스)<sup>37)</sup>이다. 장가르는 적들에게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어 적들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적들이 걸어오는 싸움에 나가 적들을 제압하기도 한다. 따라서 봄바국의 외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장가르 ⇔ 망가스’의 대결 구조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봄바국과 비(非)봄바국의 대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장가르 ⇔ 망가스’ 대결의 기본 형식은 이렇다: 봄바국의 연회 → 파연의 계기(홍고르의 술주정, 알탄 체지의 예언, 적국 사자의 도래 등) → 전투의 개시와 승리 → 적의 제압과 복속 및 화해 → 봄바국의 축하연. 양자의 대결은 봄바국의 잔치에서 시작되어 출전과 승리 이후에 잔치로 복귀하는 순환의 구조 위에 실려 있다. 그래서 김민아는 ‘잔치 → 전쟁 → 잔치’의 구조<sup>38)</sup>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자면 잔치에서 잔치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잔치는 또 다른 전투를 예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잔치 ∞ 전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라고 하는 쪽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잔치와 전투의 형식이 「장가르」의 여러 ‘마당’에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를 「장가르」의 기본 서사구조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봄바국의 외부는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7)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출간한 『몽골어-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망가스는 ‘열다섯 개 머리가 달린 아트갈짱 하르 괴물’(арван таван толгойт атгаалжин хар)이다. 「장가르」에는 봄바국의 외부에 있는 여러 적들의 수장이 대개 망가스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적장의 괴물성과 용력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비유적 수사로 판단된다.

38) 김민아(2016), p. 69.

먼저 ‘장가르 ⇔ 망가스’의 대립과 대립항 사이에서 벌어지는 잔치와 전투의 반복적 순환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해명하는 데는 비교의 방법이 유용하므로 앞서 호출했던 고구려 건국신화를 다시 불러내 보자. 주지하듯이 주몽은 동부여라는 디스토피아를 탈출한다. 「장가르」에 견주어 말한다면 주몽에게 동부여는 망가스의 나라였다. 대소(帶素, ?-22)를 비롯한 이복형제들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곳이 동부여 왕실이었다. 마침내 동부여를 탈출한 주몽은 압록강 유역에서 또 다른 망가스라고 할 수 있는 송양국의 송양을 지혜와 주술로 제압하고 고구려국을 건설한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몽에게 봄바국과 같은 나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를 세운 주몽은 당연히 축하의 연회를 배설했겠지만 고구려 건국신화는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몽의 건국 서사가 ‘전투 → 건국(축하잔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몽의 ‘전투와 잔치의 행로’는 순환되지 않는다. 일방향적이고 반순환적이다. 왜냐하면 기원전 37년 고구려(졸본부여)의 성도 졸본(중국 요령성 환인 일대)은 주몽과 그의 추종자들이 정주할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몽이 송양국을 정복한 사건은 기원전 36년의 일이었지만 주몽의 건국 서사는 ‘잔치 ∞ 전투’의 순환 구조로 서술되지 않는다. 고구려 건국 신화, 곧 건국서사시는 정주민의 서사시였기 때문이다. 건국서사시는 마침내 이룩된 정주국가의 위대한 사적 그 자체를 노래하는 서사시이기 때문이다. 정주국가의 건국서사시는 ‘잔치 ∞ 전투’의 순환에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장가르」의 서사는 끊임없이 잔치와 전투 사이를 순환한다. 봄바국과 망가스의 나라들 사이를 오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마당’(章)은 한 번의 순환을 보여준다. 「장가르」는 유목민의 서사시이고 유목적 영웅들의 행동 양식을 묘사하고 있는 신화이기 때문이다. 이 순환의 과정에서 봄바국의 잔치는 전투를 준비하는, 전투를 위해 존재하는

의례적 행위가 된다. 마찬가지로 봄바국 외부에서의 전투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봄바국의 잔치마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위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봄바국과 망가스의 나라는, 봄바국에서의 잔치와 외부에서의 전투는, 이미 앞서 언급한대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잔치’ 문제를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 김민아는 ‘잔치 → 전쟁 → 잔치’의 구조를 거론하면서 잔치를 봄바국의 고유한 형식으로 이해했지만 잔치는 봄바국의 외부에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홍고르 장가드는 마당」을 보면 장가르 쪽과 독신 차간 줄라 임금 쪽이 줄라 임금의 딸 게렌젤을 두고 내기를 시작하기 전 잔치를 배설한다. 각각 잔치 음식을 가져와 잔칫상에 앉아 내기를 시작한다. 내기를 거는 쪽은 “세 가지 다툼을 합니다. / 그 다툼을 이긴 쪽이 / 내 딸을 취합니다.”<sup>39)</sup> 라고 말하는 줄라 임금이다. 말달리기, 활쏘기, 씨름이 바로 세 종목인데 이들의 내기는 줄라 임금의 말대로 ‘다툼’ 곧 전투와 다르지 않다. 이 다툼에서는 물론 장가르의 부하들이 나가 쉽게 이기지만 마지막 종목인 씨름에 출전한 홍고르의 용력과 폭력은 압권이다. 홍고르는 “오천의 사내들을 / 집어던지고 달려와 / 말라 차간을 / 팔, 다리를 분질러 / 소리나도록 패대기쳐버렸네. / 홍고르가 그 즉시 / 살을 부싯돌만큼씩 잘라 / 강되른의(메마른 / 강철 / 갠지스 강의) 바다에 던져버”<sup>40)</sup>린다. 다툼은 장가르 측의 승리로 귀결되고, 홍고르는 게렌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일곱이레 / 마흔아홉 밤낮에 / 잔치의 발길이 법석대었네.”<sup>41)</sup>라고 노래할 정도로 대단한 잔치가 벌어진다. 이것이 봄바국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잔치, 전투와 연결되어 있는 잔치의 모습이다.

비봄바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잔치는 봄바국의 잔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봄바국의 잔치는, 이미 앞서 검토한 바 있듯이

39) 유원수 주해(2011), p. 161.

40) 유원수 주해(2011), p. 163.

41) 유원수 주해(2011), p. 164.

형식적으로는 술과 음식이 넘치고, 영원히 스물다섯 살로 살고 있는 남성전사들이 어울려 있는 축제의 장이다. 내용적으로는 술에 취한 흥고르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제인 알탄 체지가 이를 비판하는 갈등의 장이고, 한편으로는 전사들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주인공 장가르가 좌정해 있는 장이다. 그러나 비봄바의 잔치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장가르가 없고, 전투에 나선 장가르와 전사들, 그리고 갈등과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이름을 지닌 망가스만 있다. 비봄바의 공간은 전투에서 승리한 전사들이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망가스와의 전투에 나서려는 전사들이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잔치가 바로 전투이고 전투가 잔치인 공간, 전투와 잔치가 미분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봄바국의 잔치가 갈등과 대결을 외화함으로써 조정하는 장이라면 비봄바국의 잔치는 갈등과 대결을 촉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 3.2. 봄바국의 외부와 말 — 영웅

유목적 유토피아의 외부와 관련하여 「장가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존재가 말이다. 왜 그런가? 봄바국에서 「장가르」의 준마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인이 잔치를 즐기는 동안 말들은 자유롭게 초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웅이 전투에 나서려면 반드시 영웅의 짝인 준마를 불러야 하고, 위용을 갖추어야 한다. 말은 봄바국의 외부에서 빛나는 존재이고, 영웅의 조력자이자 스스로 영웅인 존재이다. 「장가르」에는 다양한 이름을 지닌 준마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없이는 봄바국의 외부와 영웅들의 전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장가르를 상징하는 준마는 ‘아란잘 제르데’이다. 「장가르」에는 특별히 「아란잘 빠른 제르데를 도둑이 훔쳐 간 데 대한 마당」(『장가르 3』)이라는 독립된 장(章)이 있을 정도로 말은 상징적이다. 이 마당에 따르면 제르데를 관리하던 보고치의 아들 보르 망나가 잡든 사이 제르데는 도난당

한다. 도둑은 케렘의 아들 몽홀라였고, 장가르의 좌익 홍고르가 제르테를 찾으러 떠난다. 말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홍고르는 말을 찾기 위해 아르슬랑 보동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고 살다가 아내의 도움으로 마침내 말의 위치를 알아낸다. 나아가 말을 되찾는 전투에는 홍고르만이 아니라 장가르와 홍고르의 아버지 식셰르계까지 함께 참전한다. 그만큼 말이 소중한데, 특히 장가르의 상징인 아란잘 제르테가 중요했다는 뜻이다.

아란잘 제르테는 장가르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들을 몰고 다니는 말이다. 아란잘 제르테는 팔만 마리의 말들을 “평범한 말이 한 번 돌 때 / 편안하고 멧진 제 발로 / 일곱, 여덟을 따라 돌아 / 한 마리도 벗어남 없이 몰았”<sup>42)</sup>던 말이다. 아란잘 제르테는 알탄체지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려는 장가르를 신고 “뵈케 뵈겐 식셰르계의 나라로 죽어라 도망쳐” 장가르의 생명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한 말이고, 홍고르가 애호 독신 망나 임금과 맞설 때 홍고르를 태우고 싸우다가 활을 맞아 “혼미해져 쓰러져가는 몸을”<sup>43)</sup>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말이기도 하다. 아란잘 제르테와 비등한 홍고르의 준마 오출 뵈케 갈잔은 주인을 태우고 하라 질간 임금과 격렬한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겨우 빨아먹을 기름이 붙어”있는 상태로 십만 병력이 일곱 겹으로 둘러싼 적들을 향해 돌진하여 오천 개의 창에 앞가슴을 찢리고도 “아혼아홉 밤낮으로” 달려 봄바국으로 귀환한 말이다.<sup>44)</sup> 「장가르」에서 말은 영웅의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전투의 필수 동반자이다.

심지어 「장가르」의 준마들은 영웅과 대화를 나누는 친구이자 부하이기도 하다. 「홍고르 장가르는 마당」에서 잠발 임금의 딸과 마지못해 결혼한 홍고르가 자신의 준마 오출 뵈케 갈잔에 올라 신흘집으로 갈지 고

42) 유원수 주해(2011), p. 79.

43) 유원수 주해(2011), p. 210.

44) 유원수 주해(2011), pp. 184-186.

향으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어엿한 열여덟 나이에 / 사람이 된다고 나와서, / 그저 먼 모습만 보고서 / 돌아갔네 하는 못난 이름을 어찌할 텐가?”라고 따지듯이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들은 흥고르가 새벽까지 해 뜨는 쪽으로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엉덩이 가죽으로 북을 만들고 갈비대로 북채를 만들겠다고 위협하자 “내일 새벽 / 해가 뜰 때까지 / 내 등 위에 매달려 있으라고! / 내 궁둥이로 미끄러져 떨어지면 / 주인이다 해서 / 도로 돌아가 태우지 않을 거니까!”라고 ‘맞짱을 뜨는’ 것도 오출 궤계 같잔이다.<sup>45)</sup> 영웅과 말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장면은 「장가르」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장가르」처럼 말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동부여를 탈출하여 건국 전쟁에 나서야 하는 주몽에게도 말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서사시에는 주몽이 준마를 획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상세히 서사화되어 있다. 먼저 동부여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모친 유희가 나선다. 유희는 “내가 들으니 장수가 먼 길을 가려면 모름지기 준마에 의지해야 한다. 내가 말을 고를 수 있다.”면서 목마장으로 가서 채찍을 휘둘러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는 붉은 말을 고른다. 이에 대응하듯 아들 주몽은 그 준마의 혀뿌리에 바늘을 꽂아 야위게 만들어 준마임을 숨겼고, 목마장을 방문한 금외왕으로부터 그 여인 말을 ‘선물’로 받아 바늘을 뽑아 다시 준마로 회복시킨다.<sup>46)</sup> 이 말은 주몽이 오이, 마리, 협보와 더불어 동부여를 탈출할 때 그의 길잡이가 된다. 더구나 이 말은 『통전』(通典)에 따르면 과하마<sup>47)</sup>로 고구려와 동예의 특산물이었다고, 몽골의 전사들이 타던, 다시 말해 「장가르」에 등장하는 말과

45) 유원수 주해(2011), pp. 113-115.

46) 其母曰：“此吾之所以日夜腐心也。吾聞士之涉長途者，須憑駿足。吾能擇馬矣。”遂往馬牧，即以長鞭亂捶，群馬皆驚走，一驛馬跳過二丈之欄。朱蒙知馬駿逸，潛以針捶馬舌根。其馬舌痛，不食水草，甚瘦悴。王巡行馬牧，見群馬悉肥大喜，仍以瘦錫朱蒙。朱蒙得之，拔其針加餵云(『東明王篇』).

47) 通典云，朱蒙所乘。皆果下也(『東明王篇』).

같은 종류의 말이다. 「장가르」의 말이나 고구려 건국신화의 말은 모두 전투에 나서는 영웅의 필수 무기이다.

그런데 『동명왕편』에 인용되어 있는 『구삼국사』 「고구려본기」 등에 등장하는 주몽의 준마에는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부여를 탈출하여 엄체수를 건넌 뒤에는 주몽의 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동부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정주지를 찾아 나선 주몽에게 말은 전투와 이동의 도구였을 뿐이다. 말은 필요했지만 지속적으로 벗어나 동행하는 동반자, 「장가르」가 형상화한바 ‘봄바국 ∞ 전투’의 지속적인 증개자는 아니었다. 나라를 세워 정주한 주몽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이제 말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의례에 사용할 고각(鼓角), 그리고 정주할 궁실(宮室)이었다. 그래서 신하 부분노를 보내 비류국의 고각을 훔쳐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래 오래된 고구려의 기물이었던 것처럼 가장한다.<sup>48)</sup> 궁실의 기둥도 썩은 나무로 세워 천년은 된 듯 위장한다.<sup>49)</sup> 유목 국가에 필요한 것이 빠르고 지치지 않는 준마였다면 정주 국가에 필요한 것은 고각과 궁실이었다. 전자에 긴요한 것이 준마를 탄 전사의 용력이었다면 후자에 긴요한 것은 말에서 내린 통치자의 지혜(叡)였다. 유목사회의 구전영웅서사시가 말 탄 영웅의 전투와 용력을 묘사하는 데 언어를 소비한다면 정주사회의 기록영웅서사시는 왕좌를 찾아가는 영웅의 지혜를 서사화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48) 王曰：“以國業新造，未有鼓角威儀。沸流使者往來，我不能以王禮迎送，所以輕我也。”從臣扶芬奴進曰：“臣爲大王，取沸流鼓角。”王曰：“他國藏物，汝何取乎！”對曰：“此天之與物，何爲不取乎！夫大王困於扶餘，誰謂大王能至於此！今大王奮身於萬死，揚名於遠左，此天帝命而爲之，何事不成！”於是，扶芬奴三人往沸流，取鼓而來。沸流王遣使告之，王恐來觀，鼓角色暗如故，松讓不敢爭而去。(『世宗實錄地理志·平壤府』).

49) 松讓欲以立都，先後爲附庸，王造宮室，以朽木爲柱，故如千歲。松讓來見，竟不敢爭立都先後(『東明王篇』).

#### 4. 마무리

일찍이 유목사회의 구조를 전착했던 아나톨리 하자노프는 유목적 리더십이 “정주적인 것에 비해 평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결정을 강요할 만한 합법적이고 강압적인 힘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방지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갖지 못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유목군장제가 그에 상응하는 정주사회의 정치체에 비해 덜 ‘평화적’”이고 매우 불안정하며 그 리더십은 분산적·분권적이라고 간파한 바 있다.<sup>50)</sup>

몽골의 구전영웅서사시 「장가르」는 하자노프가 지적한 바 유목사회의 불안정한 현실, 분산적이고 분권적인 권력체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가르」는 봄과 가을만 있는 계절 속에서 영원히 스물다섯인 청년들이 사는, 늘 잔치가 벌어지는 유토피아로 봄바국을 묘사하고 있지만 봄바국은 불안정한 이상국이다. 봄바국의 잔치는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축제는 전투로 이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흥겹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안하다. 봄바국의 권력체제 내에서는 늘 왕과 사제, 왕과 전사, 전사와 사제의 대립이 존재한다. 봄바국의 군주 장가르는 이 대립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전투를 통하여 해소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봄바국 내부에 구축된 영웅들의 대립 구조는 정주사회와는 다른 유목사회의 리더십을 반영한다.

「장가르」가 형상화한 봄바국의 외부는 내부의 대립을 외화하여 그 대립 상태를 해소하는 장치로 존재한다. 봄바국의 외부는 괴물 망가스로 상징화된 적들의 공간이다. 따라서 봄바국의 외부는 장가르와 망가스의 반복적 대결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봄바국과 마찬가지로 비봄바국

50) 하자노프, 김호동 역(1990), 『遊牧社會의 構造』, 지식산업사, pp. 230-231.

에도 잔치는 존재하지만 비봄바의 잔치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장가르는 없고, 전투를 촉발하는 망가스만 있다. 비봄바의 공간은 잔치가 바로 전투이고 전투가 잔치인 공간, 전투와 잔치가 미분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장가르와 망가스, 봄바국과 비봄바국의 반복되는 전투는, 전투에서 잔치로 진행되는 정주사회 서사시와는 다른, 전쟁을 넘어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정주국가의 영웅 서사와는 다른, 불안정하고 덜 평화적인 유목사회의 서사와 구조를 재현한다.

「장가르」는 「게세르」, 「마나스」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3대 구전장편영웅서사시로 불린다. 그 유명세에 힘입어 근래에는 국내에서도 번역본들이 출간되고 연구 논문도 종종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몽골에는 「장가르」 외에도 「항 하랑고이」, 「알탄 고르갈다이」 등 영웅서사시가 적지 않다. 일차적으로는 몽골 구전서사시에 대한 심화된 연구,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서사시와의 비교연구, 나아가 한국 구전서사시와의 비교 연구 등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봄바국의 구조와 영웅들에 대한 이 천고(淺稿)는 구전영웅서사시 연구로 들어가는 필자의 첫 걸음이다.

## 참고문헌

### 【논 저】

- 김민아(2016),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오는 ‘잔치’의 양상과 의미」, 『문학과종교』 21 (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박종성(2004), 「몽골 구비영웅서사시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9, 동아시아고대학회.
- 브뤼노 라투르, 홍철기 옮김(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 오트공바야르(2009), 「<조웅전>과 <장가르>의 비교연구: 영웅의 형상을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원수 역주(1994), 『몽골비사』, 해안.
- 유원수(2012), 「몽골 고원의 유목 전통과 현실 — 유목민, 가축, 영지를 중심으로 —」, 『인문논총』 6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이안나(2013),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의 기원 문제」, 『몽골학』 34, 한국몽골학회.
- 이안나(2014),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타난 여성의 신화적 형상과 의미」, 『비교한국학』 22, 국제비교한국학회.
- 이안나(2016), 「몽골 오이라드 영웅서사시의 전통과 연행의 특성」, 『몽골영웅서사시의 통섭적 연구』, 민속원.
- 이평래(2018), 「장가르(Jangar)의 역사적 근거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속학연구』 42, 국립민속박물관.
-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 최원오(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1) —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 최원오(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1) —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 유원수 주해(2011), 『장가르 1』, 한길사.

-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 유원수 주해(2016), 『장가르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연구원.
-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 유원수 주해(2018), 『장가르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연구원.
- 하자노프, 김호동 역(1990), 『遊牧社會의 構造』, 지식산업사.
- Ж. ЛУВСАНДОРЖ (2011), 「《Гэсэр》, 《Жангар》 — т гардаг бумба гэдэг үгийн учирт», 『B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 МӨХЗАЯА (2011), 「Жангарт тусгагдсан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B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trans. by Brian Massumi, 1987), *A Thousand Plateau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 賈木查(1996), 『史詩《江格爾》探淵』, 新疆人民出版社.
- 仁欽道爾吉(1999), 『江格爾論』, 內蒙古大學出版社.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7일

계재 확정일: 2019년 11월 7일

ABSTRACT

---

## The Structure and Heroes of Nomadic Utopia in *Jangar*

Cho, Hyun-soul\*

*Jangar*'s Bomba is a utopia that 25 years old heroes live in forever. There are only spring and autumn in that Utopia. But Bomba is an unstable utopia. The feast of Bomba is a festival to commemorate the victory, but the festival immediately brings a battle. Thus, Bomba's feast is an exciting and disturbing one. Within Bomba's power system, king and priest, king and warrior, warrior and priest always stand against each other. But *Jangar*, the chief of Bomba, does not solve this conflict from within, but solves it through external battles. *Jangar* shows unstable leadership.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of the heroes within Bomba reflects the leadership of nomadic society,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a residential society.

The outside of Bomba, which *Jangar* embodies, exists as a device to resolve internal confrontation. The outside of Bomba is the space of enemies symbolized by monster *Mangas*. The outside of Bomba is built on the structure of repeated confrontation between *Jangar* and *Mangas*. So, like Bomb, there are feasts in the country of *Mangas*, but there are no *Jangar* that coordinate conflicts in the festival of *Mangas*. There are only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gas that trigger battles. In the space of the *Mangas*, the feast becomes a battle and the battle becomes a feast. The narratives of repeated battles between *Jangar* and *Mangas* is different from the narrative of the heroes of a residential society which aims for a peace regime beyond war. It shows the structure of an unstable and less peaceful nomadic society.

